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농식품부·행안부·시도 합동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럽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럽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예천·김천·문경·구미

**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 충북 충주, 경북 예천·김천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4월은 럽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럽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하였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과 함께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럽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시·군 점검 후에는 농장을 방문하여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럽피스킨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최소화과 럽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김승만 (044-201-2563)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6190)
		담당자	서기관	유용철 (044-205-6192)

